

# “제주 카지노산업 복합리조트로 추진해야”

### 2019 국제카지노정책 포럼

#### 김상혁 교수 주제발표 제시 마카오·싱가포르 사례 강조 “주민 의견·신뢰 형성 필요”



12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2019 제주 국제카지노정책 포럼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카지노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카지노의 복합리조트화 추진을 통한 규모 확대와 고객군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상혁 가천대학교 교수(현 카지노업감독위원회)는 12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2019 제주 국제카지노정책 포럼’에서 ‘카지노 산업과 지역사회:경제·사회·문화적 영향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카지노 뿐만 아니라 숙박, 식음료, 컨벤션, 쇼핑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리조트가 전세계적인 트렌드”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마카오와 싱가포르 등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한 곳에서 먹고 쉬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복합리조트는 단순히 카지노시

설의 이미지를 넘어 막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끌어내는 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도박중독 학습권 침해 등은 오픈카지노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오픈카지노와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동일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다만 카지노 산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카지노 대형화를 통한 관광활성화 등 ‘찬성 입장’과 ▷외래자본 투자로 인한 수익의 해외 유출 ▷지역 이미지 훼손 ▷도박 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 상승 등 ‘반대 입장’이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제주 카지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신뢰형성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참여 등 지역민이 함께하는 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원 활동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송학준 배재대학교 교수는 “복합리조트를 더 이상 카지노의 이슈로 보아서는 안된다. 관광산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살아남느냐의 문제”라며 “싱가포

르 같은 도덕국가에서 복합리조트가 성공한 것은 규제를 잘해서가 아니라 복합리조트를 잘하기 위한 시스템을 잘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홍유식 제주관광회의소 관광분과 위원장은 “일본에 치이고 인천에도 밀리고 국제관광경쟁력에서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에 공감이 간다”며 “제주도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갱신허가제 등 제도적 보완 외에도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도록 제주도 의회가 도민과 더욱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수당 허위 신청·소견서만 내고도 질병휴직... 도의회 인사·복무 관리 ‘허술’

### 도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시정·주의 등 17건 조치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 인사·복무관리가 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이뤄졌으며, 기간은 2017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다.

감사 결과 시정·주의·통보 등 총 17건의 ‘행정상 조치’와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요구됐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A직원은 휴일 의정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83회에 걸쳐 시간외 근무수당을 신청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A직원은 83회 가운데 5회(19.5시간)는 출퇴근 지문인식단말기에 지문만 날인하고 정작 업무는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지난해 3월 28일 B직원은 발목이 골절돼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1년간 질병휴직에 들어간 뒤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휴직기간 연장을 신청, 도의회로부터 처리가 완료됐다.

하지만 확인 결과 B직원은 치료기간 등이 명시된 ‘진단서’가 아닌 6개월간 치료·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만 제출해 휴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연장을 신청했을 때는 정형외과가 아닌 한의원으로 부터 받은 소견서만 제출했는데도 처리가 이뤄졌다.

이 밖에도 일반임기제공무원(7급)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실무경력에 대한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이 채용됐으며, 574건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가운데 14건·1935만원이 직무활동과 관계없는 데 쓰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3년 2월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4급 전문위원이 2017년 7월 임용이 만료됐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은범기자

## 해설 제주도, 내년 예산안 뭘 담았나

# 사회복지분야 역대 최대... 지방채 발행 늘려

### 지역경제 활성화·미래성장 등 7개 분야에 예산 중점 투자 불필요한 예산 투입 지적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5조8229억원 규모)은 제주경제 활력화와 사회복지에 방점을 찍었다. 더 나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 청정 환경보전과 환경인프라 확충,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7개 분야에 예산이 중점 투자된다.

▶경제 어려움 해소·도민 삶의 질 제고=일단 사회복지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투입이 눈길을 끈다. 도는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연금 1946억원, 노인일자리사업 399억원 등 올해대비 1322억원

(11.7%)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264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체예산의 21.1%에 해당한다.

더 나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입을 위한 더 큰 내일센터 센터 운영 58억원,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적 재형지속 12억원, 생계형 일자리인 공공근로사업 124억원 등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 15억원,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20억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9억원 등이 편성됐다.

미세먼지 저감, 생활쓰레기 해소, 먹거리 관리 등 청정 환경보전과 환경인프라 확충을 위해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 153억원,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19억원,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사업 20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에 39억원이 투입된다.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안정화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35억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17억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18억원, 가공용 감귤수매 차액지원 32억원, 조 건물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161억원 등이, 청정·에너지 등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사업 2204억원,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30억원,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3억원, 제주 청정자원 화강암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22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외에 공공건설 및 안전 분야에는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추가·운영 및 가로등 증설

등에 268억원이 투자되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실내영상스튜디오, 제주문학관 조성,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사업 등에 151억원을 편성하는 등 올해대비 301억원이 증가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박차=도는 내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대폭 늘린다. 총 2520억원으로, 토지보상비만 올해 1500억원보다 940억 증가한 2440억원이며, 청사정비계획에 따른 공공청사 신축을 위해 80억원이 발행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가용재원 감소 등 뼈대살림살이 속에 지방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청사 신축 등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사업의 적절성·우선 순위를 고려해 불요불급한 부분은 조정하는 등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알림

## 꽃피는 새봄 같은 문학을 기다립니다

2020 한라일보 신춘문예

한라일보가 30년을 걸어오는 동안 결어는 늘 문학이 있었습니다. 한라일보 신춘문예 덕분입니다. 다시, 새봄을 닮은 문학을 기다립니다. 시, 시조, 단편소설 3개 부문에 걸쳐 2020한라일보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합니다. 문학을 꿈꾸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모집 부문 및 상금
  - 시 : 당선작 1편, 상패와 고료 300만원(※3편 이상 5편 이내)
  - 시조 : 당선작 1편, 상패와 고료 300만원(※3편 이상 5편 이내)
  - 단편소설 : 당선작 1편, 상패와 고료 500만원(※200자 원고지 기준 80~100장)
- 마감 : 12월 13일(금)까지(당일 도착 우편물까지 유효)
- 보내실 곳 : (63185) 제주시 서사로 154 한라일보사 교육문화체육부 신춘문예 담당자 앞
- 당선작 발표 : 2020년 1월 1일자 한라일보 지면

[안내사항]

가. 모든 응모작품은 어떤 형태로든 발표되지 않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원고를 다른 신춘문예에 중복 투고하거나 표절로 인정되면 당선은 취소됩니다.

다. 결동투에 '신춘문예 응모작' '부문'이라고 적어주시고, 원고 끝에는 이름(본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집이나 직장전화)를 써주세요.

라. 당선작이 없을 경우 해당 교료의 반액을 지급하는 가작을 받습니다.

※문의 : 한라일보 교육문화체육부  
(064) 750-2235

## <개념있는 제주> 공동체 만들기 도민토론회 개최안내

○ 제주의 최근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변동을 진단하고 부작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 구조적 장기적 개선 방안과 개인의 작은 실천을 다짐하는 방안 강구와 더불어 함께 사는 '개념있는 제주' 공동체 만들기 위해 전문가 초청 도민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 최 : 제주지방행정동우회, KCTV  
후 원 : 제주특별자치도

■ 일시	2019. 11. 15 (금요일) 10:00~12:00																									
■ 장소	제주퍼시픽호텔 2층 필홀 (064-758-2500)																									
■ 주제내용	"개념 있는 제주" 공동체 만들기"																									
■ 주제발표	김수중 (전 한국일보 주필)																									
■ 토론회 참여인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h>구분</th><th>성명</th><th>소속</th></tr> <tr><td>의장</td><td>김형수</td><td>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동우회장</td></tr> <tr><td>토론자</td><td>강정균</td><td>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장</td></tr> <tr><td>토론자</td><td>이용길</td><td>제주언론인클럽회장</td></tr> <tr><td>토론자</td><td>고재영</td><td>제주귀족신문연합회장</td></tr> <tr><td>토론자</td><td>이정필</td><td>제주YWCA 회장</td></tr> <tr><td>토론자</td><td>허범필</td><td>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td></tr> <tr><td>토론자</td><td>김태윤</td><td>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td></tr> </table>		구분	성명	소속	의장	김형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동우회장	토론자	강정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장	토론자	이용길	제주언론인클럽회장	토론자	고재영	제주귀족신문연합회장	토론자	이정필	제주YWCA 회장	토론자	허범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토론자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구분	성명	소속																								
의장	김형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동우회장																								
토론자	강정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장																								
토론자	이용길	제주언론인클럽회장																								
토론자	고재영	제주귀족신문연합회장																								
토론자	이정필	제주YWCA 회장																								
토론자	허범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토론자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동우회  
회장 김형수

## 산악인 오희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대원 모집

산사나이 오희준은 히말라야 8,000m 10좌를 한번의 실패도 없이 등정했으며, 남북극까지 횡단하면서 세계 산악인으로써 대한민국을 알렸습니다. 실과 죽음의 경계에서 도전정신을 남기고 간 오희준님은 지금도 히말라야의 품에서 아직도 도전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산악인 오희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 2019년 11월 17일(일) 08:00  
장소 : 야구장 앞 시계탑 집결  
시귀포팀 : 08시 토평동 오희준 추모공원 집결

- 인 원: 선착순 40명
- 비 용: 10,000원(교통비 및 산악보험)  
 농협 351-1060-7931-53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등산교실
- 준비물: 도시락, 식수 및 산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
- 산행코스: 거린사슴-돌오름-영아리오름-마보기

산악인 오희준 그는 누구인가?

1970년 8월 16일생 1989년 2월 서귀포고등학교 졸업
1989년 3월 제주대학교 입학, 제대 상임부 기말
1992년 8월 20일 내할 히말라야 초호우(8,201m)등정
2000년 7월 30일 파카스만 히말라야 브루르피크(8,047m)등정
2000년 10월 2일 파카스만 히말라야 시사르피크(8,031m)등정
2001년 4월 29일 내할 히말라야 로제(8,516m)등정
2001년 7월 22일 파카스만 히말라야 K2(8,611m)등정
2002년 5월 4일 내할 히말라야 안나푸르나(8,091m)등정
2004년 1월 12일 남극원정 44일간 세계 최단기록 성공
2005년 5월 1일 64일간 도보로 북극점 도달
2006년 5월 11일 내할 히말라야 에베레스트(8,848m)등정
2006년 7월 8일 파카스만 히말라야 가사브르 1봉(8,068m)등정
2006년 7월 31일 파카스만 히말라야 가사브르 2봉(8,035m)등정
2006년 9월 20일 내할 히말라야 마나슬루(8,156m)등정
2007년 배양해빙 횡단
2007년 5월 16일 에베레스트 남서벽 코리안루트 개척중 캠프사정원 7,700m 지점에서 "산사나이 하늘을 오르다"
2008년 9월 30일 체육관광 영웅상수훈(체육관광 영웅상 제51호)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이사장 현 학봉  
연락처: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사무국(010-9838-6552)

## 신장개업 11월 17일 OPEN!

### 담백하고 고소한맛 프리미엄 장어구이

## 한라산 민물장어

▶도남우재국 ▶인원사거리 ▶이도초▶  
▶도남 ▶SK도남주유소 ▶한라산 민물장어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한  
건강 보양식 민물장어 구이로  
원기 회복하세요!

대표 김용선

신제주! ▶CS김택스주유소 ▶제주종합청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로 104 백옥아파트 103호 TEL064-726-0088 Mobile 010-6677-6008